



친구

효정고 3-3 김민주

나에겐 친구가 있습니다.

그 애는 나에게 시선을 맞춰주고
내가 하는 말을 내게 똑같이 해줍니다.

모진 말이더라도 그 애는 주저하지 않습니다.
혹여 내가 상처를 받고 돌아서는 일이 있어도
그 애는 나에게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.

말 한마디 하지 않고 우울할 때면
그 애는 말없이 다 알아주더랍니다.

먼저 찾아오는 일 없이 제 자리를 지키는 모습도
외로운 내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.

우린 약속을 합니다.

서로에게 시선을 맞춰주고
서로에게 좋은 말만 하자고.
그럼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.